

추석 가정예배 순서

예배의 부름

인도자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시100:3~4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559장(통305장) -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민심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

말은이

성경

경

골로새서 3:15~17

다같이

-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설교

교

- 평강과 축복이 충만한 가정 -

다같이

기도

도

설교자

찬송

송

- 370장(통455장) -

말은이

1. 주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기도

도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평강과 축복이 충만한 가정

골로새서 3:15~17



2024년 가을,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충만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의 '주장하다'는 헬라어로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치받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소유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진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루셨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과 불화를 넘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장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의 질서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과 질서를 파괴함으로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가정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듯 어느새 2024년도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평강과 말씀이 충만하여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2024 추석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중부교회

※추석에 바라는 소망을 한 가지씩 온 가족 앞에서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